

대정부질문 시작...고발 사주 의혹·언론중재법 총돌 예고

광주·전남 운영덕 의원 유일 학동 참사 후속 대책 등 지역 목소리 제대로 못낼 듯

국회는 13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지만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많아 의원별 순서를 정해 대정부질문을 하다보니 초선 중심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국회의원

들은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집중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더욱 무관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여야 의원들이 하루 11명씩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이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는

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론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임 중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김용 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도 여야의 총돌 지점이다. 특히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제위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 방역 대응, 민생경제 지원책 등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피주기식 추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정책을 점검할 것"이라며 "검찰의 총선 개입, 즉 '검풍 시도' 사건인 고발 사주 의혹도 집중적으로 짚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에서는 16일(교육사회문화) 민주당 운영덕(동남갑) 의원이 유일하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윤 의원은 12일 "교육분야 대학평가·지방대 문제와 근로정신대지원법안, 지역현안인 전두환국가장·국립묘지안장 문제, 학동참사 후속대책 등을 놓고 대정부질문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인사는 "제대로 된 대정부질문이 없어 광주·전남 정치권이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고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대권 경선에 몰두 하고 있어 더욱 대정부질문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주택정책 설명하는 윤석열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대문구 신촌 UCU 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청년 희망을 해강하라'에 참석,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피의자 입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민주, 박지원 연계 차단 주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압수 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용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

민의원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불거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된 4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2건으로 입건한 바 있으나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 기존 사건들은 이미 검찰에서 검찰이나 진상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현재 대선 정국의 변수로 평가돼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터진 배경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면서 윤 전 총장의 불법 혐의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을 향해 "침묵과 책임 떠넘기기, 몰타기로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까지 끌어들이려 횡단한 몰타기까지 시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내년 대선 날 '미니 총선' 열리나...재보선 최대 5~6곳 예상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 급으로 커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인연 전 대표(서울 종로)까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우선 부친의 부동산 법원위반 의혹이 나오자 사퇴를 선언한 윤 의원의 사직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승부수로 사퇴서를 던진 이 전 대표의 경우 일단 지도부는 신중한 기류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회계부정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경순 의원(경주 상당) 지역구도 재보선이 예정돼있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나 5~6곳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의 지역구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재보선 판도는 대선과 같은 '박방'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같은 날 치러지는 대선 구도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남부권에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하겠다"

유승민 후보 광주일보 서면 인터뷰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사진) 전 의원은 12일 "영남지역주의"에 빠져서 정치한 적 없고, 호남에서도 개혁보수를 지지하시는 시민이 많이 계신다고 믿는다. 이런 진심이 통한다면 호남 분들이 제게도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대구출신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했지만 호남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광주·전남 시도민도 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며 "영호남의 대표 도시인 광주와 대구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한다. 대구와 광주는 그동안 정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지만 대구·광주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공정한 경선의 핵심은 '충분한 민심 반영'과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충분한 민심 반영이 중요하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싫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무당충, 중도충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이는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

사는 검찰 내 대검에서 상당한 고위 직책을 갖고 있던 분이다. 그런 분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 문건을 만들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만약 고발을 대검에서 만든 게 확실하고 그제 당에 전달돼 들어온 게 사실이면 윤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하는 경제'로 만들어야 '21세기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 반도체 전성 승리, 남북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소개했다. 또 호남공약으로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끌어갈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칼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010-6670-9800